

特輯
座談

미국의

종돈업계를 둘러보고

일 시: 1986년 4월16일 14:00

장 소: 본회 회의실

참석자: 자매결연팀: 이춘만(꿀꿀이농장 대표)
장철현(선진원종 축산기사)
이일형(본회 지도부 과장)

종돈선발팀: 오세권(구일산업 생산부장)
안기문(신기농장 대표)
최혁규(현일상사 대표)

사회: 이교훈(본회 홍보부 부장)

정리: 최승덕(본회 홍보부 기자)

사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좌담회는 아이오와주 순종돈협회(IPSC)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분들과 종돈을 선발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분들을 모시고 미국 종돈업계의 현황과 육종방향,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종돈 개량방향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먼저, 자매결연팀으로 참석했던 이일형 과장께서 미국의 종돈업계 현황과 자매결연 목적 등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일형: 미국의 양돈사업은 옥수수지대(Corn belt)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상시 사육두수는 5천4 백만두 정도이고 종돈은 약

5 백만두 정도로 우리나라의 약 12~13배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경제형질을 가장 중요시하여 Lean type으로 개량하고 있으므로 종돈장의 능력과 지향하는 지표가 우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순종돈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목적은 양 협회간의 친선도모, 기술 및 정보교류, 양돈 전문인력교류, 종돈 수출입체계 확립 등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자매결연 체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州)농무성 장관이 직접 참석했으며 T.V에서도 녹화중계까지 하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회: 미국의 돼지를 직접 선발하셨는데 선발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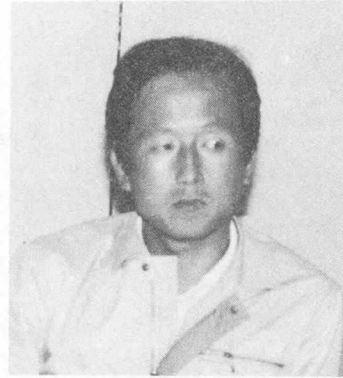
오
세
권
씨

오세권 :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직접 돼지를 선발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이번 방문에서의 효과는 컸다고 자부합니다. 그 쪽의 돼지 선택도는 많은 살코기를 생산할 수 있는 돼지 즉, 등폭이 넓고, 흉폭이 깊으며, 체장이 긴 돼지가 인기 있었읍니다. 어떻게 보면 사각형 상자 같은 모양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늘씬하고 쪽 빠진 돼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서서히 육종방향을 그런 쪽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철현 : 그 쪽의 종돈업은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는 것 같았읍니다. 다수 품종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종돈장과는 달리 단일 품종을 중심으로 개량하고 있었으며 각 농장별로 종돈의 형질이 고정(정착)되어 있었읍니다. 개체의 능력과 더불어 혈통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혈통(라인)을 가진 돼지라야만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종돈가격은 햄프셔가 시장성이 좋아서 가장 높았고 대요오크셔와 듀록이 그 다음이었는데 짝 편이었읍니다.

이일형 :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중간상인의 마진이 너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쪽의 검정돈 가격은 평균 700~800\$ 정도이고 상위 10위(Top ten)내에 드는 것이 약 1,400\$ 내외였



장
철
현
씨

읍니다. 운이 좋을 때는 그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 것 같았읍니다.

사회 : 미국의 축사시설은 어느 수준인지요?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춘만 : 저는 이번 방문에서 시설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는데, 우리보다 좋은 점은 별로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뛰어난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특별한 것이 눈에 많이 띠었읍니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급수시설(Nipple)을 개발해서 쓰고 있었으며 사료통도 상당히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었읍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겨울에도 방목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은데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농장에서 시험사육해 본바로는 겨울철에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여름철에는 오히려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읍니다. 저는 모돈만큼이라도 방목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방목을 시키면 훨씬 튼튼하게 돼지를 기를 수 있으며 호흡기 질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장철현 : 제가 보기에 시설은 국내 양돈장보다 좋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자연조건에 맞는 시설을 하여 종돈개량 측면에서는 국내보다 합



이
춘
만
씨

리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시설은 뛰어난게 많으므로 국내에서도 축산기구 선진화에 힘쓰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종돈을 도입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사양기술을 도입하는데는 인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종돈 도입과 더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Know How를 빼내 와야 되겠습니다.

사회 :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군요. 앞으로는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겠군요. 그쪽 관계자들이 우리팀의 수준을 어떻게 보던가요?

오세권 : 처음에는 우리 선발팀의 수준을 테스트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종돈장을 안내하기에 우리가 종돈 구입을 거절하였더니 차츰 좋은 농장으로 안내하더군요. 그 사람들의 말만 믿고 따르다 보면 좋은 종돈을 선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농장을 요구하여 전부 본 후에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기문 : 저도 동감입니다. 가급적 검정돈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신뢰할 수 있으므로 속지 않으려면 경매에 참석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돈을 선발할 때는 전문



이
일
형
씨

가가 직접가서 자세히 관찰하고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혁규 : 미국에서 돼지를 구입하려면 구입하는 시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돼지를 연중 계속 검정하는 것이 아니고 봄 돼지는 가을에 경매하고, 가을 돼지는 봄에 경매하므로 그 시기를 적절히 맞춰야 좋은 돼지를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수의 종돈을 수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몇 십두를 수입해 오더라도 정말로 좋은 돼지를 구입해 와야 되겠습니다. 그 쪽 사람들은 좋은 돼지를 선발하면 팔렸다고 하던가 특별요금(special price)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봉쇄하려면 계약단계에서 철저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춘만 : 가격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면 좋은 돼지를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돼지가 있으면 그 쪽에서 원하는 가격을 주고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격보다 돼지에 중점을 두고 선발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 돼지는 능력만큼의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최혁규 : 선발할 때는 정말 세심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돼지 쇼(show)장에는 톱밥을 너무 많이 깔아서 발을 자세히 볼 수 없더



안
기
문
씨

군요.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구입하기 전에 철저한 관찰을 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이 많아서 교체해 주거나 하지만 그 쪽 사람들은 계약을 중요시 하므로 그 점을 특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배울 점이 있다면 양돈하는 자세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전문적으로 종돈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긍지를 가지고 양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혈통이나 성적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더군요. 주인은 각 개체의 특징 및 기록을 환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각 농장마다 한두 개 우수한 혈통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죠.

사회 :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이오와주 순종돈협회(IPSC)와 전국 생산자협회(NPPC)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일형 : IPSC는 1964년에 설립된 단체로 돼지의 주요 8개 품종 생산자 400여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역할은 다산성이며, 모성애가 뛰어나고, 사료효율이 우수하며, 내병성이 강한 고품질의 돼지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
혁
규
씨

또한 NPPC의 아이오와주협회(IPPA)를 인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IPPA의 비육돈 생산자들과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IPSC는 아이오와 검정소를 통해 연간 1,500두의 검정돈을 미국 전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므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종돈을 수입하는데 많은 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NPPC는 1950년대 초에 조직된 것으로 현재 38개 주에 11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간 1,000만\$의 자조기금(check off fund)을 가지고 돈육 소비촉진, 소비자 교육, 연구사업, 대정부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체크오프는 비육돈과 자돈 두당 각각 20센트, 10센트씩 10개 주는 의무적으로, 28개 주는 자발적으로 공제하고 있는데, 약 40%의 양돈농가가 무임승차하고 있어 85년 말에 미국 전역에서 의무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87년도에는 2,500만불, 5년후에는 5,000만불의 자조금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은 돼지고기 소비촉진 사업에 71%, 양돈산업 연구사업에 11%, 소비자 교육사업에 10%, 협회 관리비로 6%, 대정부 활동에 2%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돈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자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하여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우리 협회에서도 자조금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이의 실현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생산자들의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까?

장철현: 미국의 양돈농가는 협회와 정부를 믿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나 요망사항이 있으면 협회를 통해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일형: 저도 그런 점을 느꼈는데요. 정부와 농가가 서로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이 잘 되어 있더군요. 그 쪽은 지금 양돈산업이 불황입니다. 옥수수도 불황인데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작부 면적을 제한하는 등 스스로 불황을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생산자들의 규모는 100두 이하가 대부분이고 500두 이상은 6.7% 밖에 되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호당 120~130두 정도 사육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쪽의 기술축적은 대를 이어 가업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인된다고 보여 집니다. 아버지의 기술을 아들에게 물려줌으로써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농장마다 돼지가 다 틀립니다. 말하자면 자기

농장에 맞는 특색있는 돼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보아야지요. 우리도 그런 점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기문: 우리나라의 농촌현실은 그렇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 양돈산업도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 후계자들도 양성하고 농촌의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한다면 그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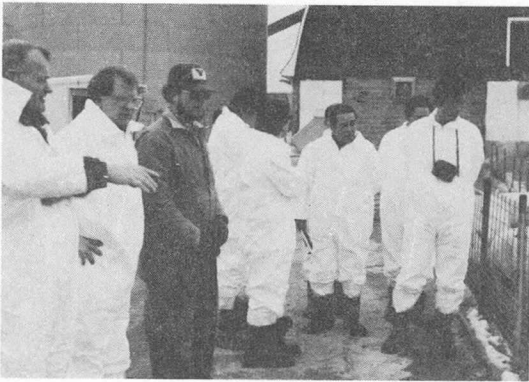
사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종돈개량방향은 어떤 쪽으로 나아가 될지를 미국과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죠.

장철현: 우리나라도 종돈능력검정소가 생기면서 종돈개량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엔 무엇보다도 등지방두께와 체장에 신경을 써서 개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등지방이 두껍다는 것은 사료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긴데 얇은 등지방을 가진 돼지로 개량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돼지들은 다리 4개에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돼지와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최혁규: 우리나라 돼지 개량에 가장 저해가 되는 것은 중매인들의 구미에 맞는 돼지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살코기를 많이 생산하는 돼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매인들이 원하는 형의 돼지를 만들어 내니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제대로 될려면 돈육의 등급제가 무엇보다도 빨리 실현되어야 되겠습니다. 등급제가 실시되면 생긴 모양은 별 문제가 없는데 고기를 많이 낼 수 있는 돼지가 인정받게 될테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Loin 단면적을 매우 중요시 합니다. 모든 기록에는 반드시 Loin 단면적이 들어 있습니다. 돼지를 기르는 궁극적인 목적이 고기를 생산하는 것이므로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거세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세를 한 돼지나 안한 돼지나 같은 값을 받고 있으므로 거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춘만 : 거세를 하면 등지방이 20%정도가 더 낫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등지방이 두꺼워서 야단인데 더 이상 두꺼워지면 문제가 안될까요?

장철현 :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등지방이 두꺼워지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냄새가 없어지고 하면 선호도는 좋아지겠지만 등지방이 두꺼워지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세권 :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지금은 90kg에 출하하고 있는데 105kg에 출하하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육율을 따지면 105kg에 출하하고 거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돈장에서 생활하니까 냄새를 크게 못 느끼지만 일반인들은 좀 다르거든요. 앞으로는 거세를 안한 돼지는 각 도축장에서 도축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90kg에 출하하는 것을 105kg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손해가 엄청납니다.

사회 : 끝으로 세계적인 양돈추세와 그밖에 느

끼신 점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에서는 합성돈에 대한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오세권 : 제가 생각하기엔 합성돈과 4원 교잡종과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학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LW암컷이 있으면 햄프셔 수컷을 개발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장철현 : 미국은 종돈에 대한 홍보가 잘돼 있었습니다. 검정소에 출품된 돼지와 농장 자체에서 선발된 돼지들의 성적이 홍보용 팜프렛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었으며 신뢰도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차원높은 종돈개량을 위해서는 홍보도 강화해야 되겠고 협조 조직도 활성화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종돈 구입처도 엄격히 선발해서 구입해 오도록 해야 국내 종돈개량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돈만 구입하고 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혁규 : 돼지를 선발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농장은 컴컴한 창고 같은데 쇼(show)장을 마련한 곳도 있었습니다.

좀 더 세심한 관찰을 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세권 : 종돈을 선발 할 때는 꼭 전문가가 직접가서 선발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사회 : 우리나라의 종돈개량을 위해서는 미국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보고 느끼신 점을 우리 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